

# 집으로 기억되는 시간

At the time when we live at home

글. 황현진 Hwang, Hyunjin | 소설가

삶의 절반을 혼자 살았다. 덕분에 오랫동안 좁은 집에 살았다. 어디 가? 누가 물어오면 내 방에, 라고 대답하던 시절이었다. 방 하나가 전부인 공간을 집이라고 부르기는 뭣했다. 공간의 협소함 때문은 아니었다. 방은 짓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방은 들이는 것이라고 여겼다. 손님을 방에 들이듯이, 방 또한 그렇게 들이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다시 내보내는 일 또한 가능한 것이 방이었다. 이를테면 방은 비어있더라도 그의 이름은 집에 남아있다. 방은 그를 잊지만 집은 그를 보존한다. 방은 금세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집은 누군가의 부재를, 상실을 기억한다. 결국 방은 자리이고, 집은 그 자리들의 질서로 지어진다. 그러므로 집은 때때로 죽은 자들의 것이 되기도 한다. 어릴 때, 거실은 아버지의 방이었다. 안방은 할머니의 방이었다가 엄마의 방으로, 베란다가 딸린 방은 내 방이었다가 동생의 방으로 바뀌었다. 때로는 그저 빈 방일 때도 있었다. 누군가의 변덕으로 혹은 누군가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방은 달라졌다. 그 점에서 방과 집은 달랐다. 집은 가족의 것이었으니까. 주소가 바뀌더라도 집은 언제나 ‘우리 집’으로 불렸으니까. 설령 가족 중 누군가 오래 방을 비우더라도 그는 암묵적으로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삼년 전 이사를 했다. 떨어져 살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어 큰 집이 필요했다. 고향에 살던 식구들은 서울로 이사를 와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집을 고르는 건 오로지 내 몫이었다. 처음으로 집의 구조라는 것에 대해 골몰하기 시작했다. 조건에 딱 들어맞는 집을, 가진 돈 안에서, 가족 모두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져보아야 할 조건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식구수가 많으니 방이 세 개는 있어야만 하고, 거실은 좁더라도 부엌은 넓어야만 했다. 게다가 새 집은 형편상 무리였다.

고심 끝에 고른 집은 1979년에 지은 단독주택이었다. 삼각지붕 아래 낮은 다락방이 있고,

좁지만 마당이 있고, 지하실과 외부창고가 딸린 집이었다. 큰길에 있지만 돌아앉아있는 모양이라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큰길로 나있는 대문을 지나 양옆으로 화단을 끼고 있는 좁은 길을 지나야만 안쪽 대문이 나타났다. 방은 세 개인데, 창이 북향으로 나 있는 방에만 화장실이 딸려 있고, 거실보다 부엌의 천장이 눈에 띄게 높았다. 산 아래 지어진 집이라 산과 맞닿은 부분에는 담장을 높이 쌓았다. 봄이면 개나리 가지가 휘어져 페인트칠이 벗겨진 담장을 가려주었다. 마당에는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고양이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었고, 봄여름에는 벌레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이전에 살던 사람은 노부부였는데, 몸이 아파서 아들네 집으로 급히 이사를 간다고 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집의 존재방식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로 막상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그동안 집을 고르는 데 있어 내 기준은 오직 하나뿐이었음을 알았다. 방의 개수나 천장의 높이는 나중의 문제였다. 문제는 “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나 질서에 우리가 수긍하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느냐였다. 아마도 그건 집이 살아온 시간 동안 저절로 쌓인 것일 텐데, 나는 그걸 어느 날 집 밖에서 문득 떠올리곤 한다. 냄새 때문이다.

삼년 남짓 사는 동안 집의 냄새가 서서히 달라졌다. 방에 살던 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다. 방에서는 사람냄새가 음식 냄새나 하수구 냄새와 같은 다른 것들에게 압도당했다. 집은 사람 냄새를 풍겼다. 나에게도 달라진 집의 냄새가 났다.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의 냄새가 난다. 집은 우리를 후각적으로 드러낸다. 서로의 포로 같은 사이랄까. 사는 법이 거기 물들어 있으니까. 서로를 인용하며 살아가는 동안 집의 질서 또한 달라진다. 집도 변한다.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걸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저 시간을 짓고 있다고 밖에.